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에 대하여

— 文法化(Grammaticalization)를 중심으로 —

愼 鏞 權**

— <目 次 —

I. 머리말	3. 後置詞의 文法化和 어순 변화
II. 語法 변화와 文法化	IV.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 변화의 원인
III. 文法化와 어순변화	V. 맺음말
1. 介詞의 文法化和 어순변화	
2. “將/把”의 文法化和 어순변화	

I. 머리말

漢語 語法에서는 어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와 같이 파생과 굴곡이 접사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접사가 語法 관계를 나타내지만 漢語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착어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어순이 語法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어순 및 어순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漢語 語法 및 語法史에서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 왔다.

본고는 漢語語法史의 중요한 주제인 어순변화의 문제를 고려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진행된 漢學書인 《老乞大》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주로 “文法化(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변화의 원인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早期의 《老乞大》 刊本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전임강사

과 이후의 刊本을 비교해 보면 어순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시대에 따라 상이한 刊本들에서 출현하는 어순의 차이를 통해 元代 이후 漢語에 나타난 어순변화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老乞大》 刊本들에 나타나는 어순변화의 상황을 비교 연구하고 文法化의 관점에서 그 변화의 기제를 고찰함으로써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의 과정과 近代漢語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중국 문헌과 《老乞大》, 《朴通事》 등에 반영된 어순변화의 양상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³⁾ 그러나 이전

- 1) 중국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Grammar”와 “Grammaticalization”을 “語法”과 “語法化”로 번역하나, 본고에서는 일반언어학적 관례에 의거하여 “文法”과 “文法化”로 번역하며 본고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語法”이라는 용어는 일반언어학에서의 “Grammar(문법)”이나 “Syntax(통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 2) 《老乞大》의 판본은 크게 나누어 볼 때 5종류가 있다. 본고에서는 諺解 부분을 참고하기 위하여 諺解本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舊刊老乞大》와 《老乞大新釋》을 제외하고는 諺解本을 이용하였다. 《老乞大》와 그 諺解本의 原文 사이에는 文字上的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諺解本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老乞大》나 그 諺解本의 판본을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 우측에 있는 명칭은 이 판본들에 대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호이다.
 1. 《舊刊老乞大》(14세기) → 《舊刊》
 2. 《翻譯老乞大》(1517年以前) → 《翻譯》
 3. 《老乞大諺解》(1670年) → 《諺解》
 4.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年序) → 《平安》
 5. 《老乞大新釋》(1761年序) → 《新釋》
 6. 《重刊老乞大諺解》(1795年以後) → 《重刊》
- 3) Sun(1996)에서는 중국어의 어순변화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고 《老乞大》나 《朴通事》에 나타난 어순변화의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康寔鎭(1985), 梁伍鎭(1998), 李泰洙·江藍生(2000) 등이 있다. 특히 李泰洙·江藍生(2000)에서는 《老乞大》의 제판본에 나타난 어순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 유형을 주로 목적어, 부사어, 접속어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을 알타이어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 《老乞大》의 어순변화가 보여 주는 양상이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 및 그 출현의 원인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의 연구에서는 漢語의 어순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단순히 그 유형들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老乞大》에 반영된 어순변화의 양상에 대한 기술을 기초로 이러한 양상이 보여 주는 바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도 漢語의 어순변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 온 文法化의 문제와 元代漢語 변화의 중요한 요인인 언어접촉의 문제를 어순변화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漢語 변화 및 언어변화의 한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語法 변화와 文法化

文法化는 語法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文法化와 관련된 개념은 이미 10세기 전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왔으나 처음으로 “Grammaticalization”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Meillet에 의해서이다.⁴⁾ 이 이후로 文法化에 대한 개념 제시 및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졌는데 이 중 文法化를 “한 형태소가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변화”라고 한 Kuryłowicz의 언급이 文法化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의 개념 정의이다.⁵⁾

4) Hopper(1991:17)에 따르면 Meillet는 “문법적 속성은 이전의 독자적 단어에서 비롯된다”라고 文法化를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5) Heine외(1991), 이기갑(1993) 참고 文法化 연구의 역사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주로 문법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과 문법화 연구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에 대해 참고할만한 연구서로는 英文本으로 Lehmann(1982), Heine외(1991), Hopper & Traugott(1993)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文法化란 어휘 요소가 문법 요소로 그 기능을 바꾸는 언어변화의 한 양상을 말한다.

文法化에 대한 주요 개념이나 견해는 이론의 발전 단계를 거치며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지면관계상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이전의 연구들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文法化的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語法 범주는 파생적 또는 굴곡적인 형태론(morphology)의 방법으로 실현되는가 하면 통사론(syntax)의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語法 범주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語法 범주 실현방식 변화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⁷⁾ 이러한 방향 중에서 통사론적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화하는 것은 文法化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Givón이 언급한 “오늘의 형태론은 어제의 통사론”이라는 언급은 文法化 연구에서 하나의 금언처럼 많이 인용된다. Givón은 더 나아가 옛날의 담화 구조들이 통사론적 구조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⁸⁾ 이러한 언급은 文法化的 방향이 일반적으로 화용론적 구성은 통사론적 구성으로, 통사론적 구성은 형태론적 구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학계에서도 문법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많은 문법화 관련 연구성과들이 출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기본 개념 및 역사적인 개관과 관련하여 이기갑(1993), 권재일(1995, 1997), 이성하(1998) 등을 참고하였다.

6) Hopper(1991:22-31)에서는 문법화의 다섯 가지 원리로 ① 층위화(Layering), ② 분화(Divergence), ③ 특정화(Specialization), ④ 의미지속성(Persistence), ⑤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권재일(1997:14-17)에서는 그 원리의 기본적 내용과 한국어에서의 예가 제시되고 있다. 이성하(1998)에서는 문법화의 주요 개념, 원리, 기제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성하(1998:133-156)에서는 문법화의 주요 개념으로 ① 일관성 원리(Uniformity Principle), ② 연속변이(Cline), ③ 순환(Cycle), ④ 화석화(Fossilization), ⑤ 도식(Schema), ⑥ 주관화(Subjectific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권재일(1995:301-307) 참고.

8) 이성하(1998:40) 참고.

둘째, 명사나 동사 등과 같은 實辭에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의 虛辭로의 전이는 연속변이(Clines)의 과정이다. 즉 형태들은 갑작스럽게 하나의 범주에서 또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일련의 변화를 거치는 것이다.⁹⁾ 예를 들어 Bopp는 인도유럽어의 역사적 변이과정에서 “어휘적 형태소 > 조동사 > 접사 > 굴절형태소”등으로 변해 가는 연속 변이의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속변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이면서 공시적인 두가지 함축을 지니고 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형태의 진화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이며 공시적으로는 연속변이의 한 쪽 끝에는 더 완전한 형태인 “어휘”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응집되고 축약적인 “문법적 형태”가 있는 항목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연속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언어요소가 같은 영역 안에서 자꾸 文法化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표현들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¹⁰⁾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여러 語法 형태들이 의미상 분화(divergence)되어 한 단어가 文法化의 과정에서 원래 단어는 그대로 본래의 의미로 남아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형태는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변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결과 동일한 근원에서 온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공시적으로는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관련 형태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語法은 정해져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생겨나는 것이며 文法化란 구조를 지향하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뜻한다.

셋째, 단어는 통용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의미 내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Schlegel은 “단어는 언어속에서의 순환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의미 내용을 벗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위 지폐이론(paper-money theory)이론이라고 불리고 있다.¹¹⁾ 이처럼 文法化의 과정에서 본래 實辭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Hopper & Traugott(1993), 이기갑(1993), 권제일(1997), 이성하(1998) 등 참고.

10) 이는 기존의 층위와 새로운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으로 Hopper(1991:22-24)에서는 층위화(Layering)라는 원리로 제시되었다

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약화되고 이 단어가 文法化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한 채 語法的 기능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文法化的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文法化的 과정에 있는 언어요소는 文法化가 완료된 이후에도 원래 의미의 흔적이 남아서 문법적 분포(grammatical distribution)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¹²⁾

넷째, 文法化에 사용되는 형태는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그것이 일단 文法化를 겪고 나면 그 빈도가 더욱 잦아진다.¹³⁾ 또한 사용빈도와 의미적 표현강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文法化를 통해 實辭가 虛辭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그 형태의 의미적 표현강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한 언어요소에 근원을 두고 있는 여러 語法 요소들이 공시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면서 해당 語法 기능을 하는 語法 요소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그 중의 특정 語法 요소가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해당 語法 기능을 전담하는 語法 요소로 변하게 된다.¹⁴⁾

여섯째, Meillet(1912:147-148)에서 文法化的 영역이 문장의 어순에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文法化는 어순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Meillet(1912)에서는 인도유럽제어를 예로 들어

- 11) 이성하(1998:32) 참고 즉 지폐이론이란 화폐가 두루 통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종으로 만든 것이 더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들도 한 언어내에서 많이 쓰이려면 그 단어들의 의미 내용이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지시사에서 정관사로 변화한 것, 수사 1에서 부정관사로 변화한 것, have- 구문에서 완료/과거 표시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12) 이는 Hopper(1991:28-30)에서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라는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권재일(1997:16-17) 참고.
- 13) 이기갑(1993:27-28) 참고.
- 14) 이는 Hopper(1991:25-28)에서 특정화(specialization)라는 원리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 語法 요소가 특정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권재일(1997:16) 참고.

어순변화가 화용론적 의미에서 문법적 의미로의 변화와 관계되며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단지 수식하기보다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문법 도구를 창조하는 것으로 어순의 문법적 고정은 개별 단어의 文法化와 같은 수준의 현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文法化의 주요 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양상들이 본고의 주제인 漢語의 어순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역사언어학의 목표는 언어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기술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文法化는 이러한 역사언어학의 목표 중 언어변화의 전개 양상에 대한 중요한 설명도구의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비단 역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시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짝트게 되었다. 그것은 공시적인 불균형 체계나 언어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¹⁵⁾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니지만 古代中國의 학자들도 漢語에 있어 文法化와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鄭奠·麥梅翹(1964)에 따르면 宋代 이래로 중국의 학자들은 현재의 文法化를 의미하는 “虛化”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였다고 한다. 宋代의 학자인 陸九淵은 實辭와 虛辭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¹⁶⁾, 元代의 학자인 周伯琦는 “현재의 虛辭는 과거에는 모두 實辭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¹⁷⁾ 이는 중국학자들이 이미 오래 전

15) 이기갑(1993:28) 참고. 또한 이기갑(1993, 1995)에서는 문법화에 대한 더 발전된 논의로 문법화를 담화화용론 안에 자리매김하고, 담화화용론과 함께 가거나, 또는 그 결과로 보거나 심지어는 그 내적인 구성자질로 보려는 경향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법화는 어휘적인 것을 문법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뿐 아니라, 담화의 패턴을 문법적 패턴으로, 담화 수준의 기능을 문장 수준의 의미적 기능으로 재해석한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기갑(1993, 1995)에서 제시되고 있다.

16) “字之指歸又有虛實，虛字當論字義，實字當論所指之實”

부터 漢語에 나타난 文法化의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기존의 漢語語法史 연구에서는 최근까지도 文法化의 과정을 實辭에서 虛辭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표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漢語의 語法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文法化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현상은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도 수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漢語의 言語史를 통해서 보면 文法化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語法史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진일보한 文法化 이론의 측면에서 세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文法化와 어순변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文法化 현상은 어순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장에서는 漢語의 文法化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순변화를 동반한 예로 간주되어 온 介詞, “將/把”구문, 後置詞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와 文法化의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介詞와 “將/把”구문의 경우에는 文法化의 과정에서 SVO 어순에서 SOV 어순으로의 변화를 동반하여 文法化와 어순변화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예로 주목을 받아 왔다.¹⁷⁾ 後置詞의 경우에도 方位詞들이 後置詞로 文法化된 이후에 《老乞

17) “大抵古人製字, 皆從事物上起. 今之虛字, 皆古之實字”

18) 現代漢語의 介詞 중 많은 수는 連動文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介詞로 文法化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V_1OV_2 방식의 구문에서 첫 번째 동사가 介詞로 변환 경우는 “將, 把”뿐이고 실제로 대다수의 介詞는 $V_1O_1V_2O_2$ 방식의 구문 중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변화한 것이며 소수의 介詞는 두 번째 동사 위치에서 文法化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介詞와 “將/把”구문을 文法化의 과정 중 SVO 어순에서 SOV 어순으로의 변화를 동반하는 전형적인 예로 간주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大》의 後期刊本에서 後置詞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後置詞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老乞大》 刊本들에서는 각각의 상응하는 문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介詞, “將/把” 구문, 後置詞 등의 文法化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많지 않다. 다만 동일한 근원에서 온 형태가 공시적으로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老乞大》 刊本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하고 유사한 기능의 언어요소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상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文法化의 과정을 살펴 보고 어순변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 하도록 하겠다.

1. 介詞의 文法化와 어순변화

介詞는 대부분 動詞에서 기원한 것으로 先秦과 兩漢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魏晉南北朝(220~581) 시기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近代漢語에서 여러 介詞들이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용법이 다양화하기도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介詞는 뒤에 오는 명사 및 대명사와 함께 그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여 시간, 방향, 방식, 대상 등을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 介詞構造란 이처럼 介詞가 뒤에 오는 명사 및 대명사와 함께 구성하는 구조를 말하며 介詞構造는 그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여 다양한 의미작용을 나타낸다. 단음절 介詞는 대부분 動詞에서 文法化 과정을 통하여 변화한 것이고, 두 음절 介詞는 대부분 두 單音節 介詞 介詞와 助詞, 動詞와 介詞, 名詞와 動詞, 動詞와 動詞 등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절에서는 介詞의 변화과정이 近代漢語를 반영하는 《老乞大》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편으로는 文法化의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으로 漢語의 어순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魏晉南北朝 시기에 介詞와

는 張楨(2002:278-284) 참고.

관련된 어순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老乞大》의 첫 번째 刊本이 출현하는 元明 시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어순변화가 완료된 상태여서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 後期刊本을 거치면서 介詞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난 어순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¹⁹⁾ 다만 《老乞大》를 통해 介詞와 관련된 어순이 近代漢語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老乞大》에 나타나는 介詞의 양상도 早期의 문헌들과 後期의 문헌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現代漢語의 介詞 와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러한 양상들이 文法化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老乞大》에 나타난 介詞의

19) 여기에서 介詞와 관련된 어순변화란 주로 술어동사부(VP) 앞에 介詞構造(PP)가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張楨(2002:123)에서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介詞와 관련된 어순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 시기에 “介詞+工具”, “介詞+受事”는 이미 기본적으로 VP 앞으로 이동하였고 “介詞+場所”도 대량으로 VP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介詞構造는 中心成分(Head)의 앞뒤에서 이미 의미상의 대립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介詞+對象”구조의 경우에는 佛經 문헌에서는 VP 앞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으나 그 외의 문헌들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이동은 VP가 목적어를 취하거나 單音節 구조가 아닌 문장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介詞構造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介詞構造의 의미, VP의 구성, VP가 목적어 또는 보어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Sun(1996:47)에서는 介詞構造가 VP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미 古代漢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순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介詞構造의 前移가 漢語의 어순이 SVO에서 SOV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漢語史를 통하여 介詞構造가 VP 앞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며, 古代漢語에서 VP 뒤에 위치하는 介詞構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於+場所/對象”구조가 이후에 “在”등의 介詞를 사용하는 구조로 대체되고 古代漢語에서 介詞構造가 VP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주로 “以”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介詞構造의 “VP 뒤 → VP 앞”이라는 어순변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元明 시기에 이르게 되면 “於, 以”는 口語 중에서 이미 생명력을 잃게 되고 介詞構造가 VP 앞으로 이동하는 어순변화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정착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동작의 歸結點을 나타내는 介詞構造는 VP 뒤에 놓이고 滯留하는 장소나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介詞構造도 VP 앞뒤에 균등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은 現代漢語와 유사하다. 介詞構造와 관련된 어순변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연구의 역사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張楨(2002:245-284) 참고.

양상을 그 文法化的 정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

- ① 《老乞大》에서는 動詞의 용법만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現代漢語에서 介詞의 용법으로도 사용되는 경우.
 - 예) 叫喚主人家, 辭了去來 (《舊刊》16b-9)
 - 叫主人家, 辭了去來 (《翻譯》上59a-2)
 - 辭了主人家去罷 (《新釋》19a-7)
 - 辭了主人家去罷 (《重刊》上54a-3)
 - 예) 背念過的, 師傅與免帖一箇 (《舊刊》2a-1)
 - 背念過的, 師傅與免帖一箇 (《翻譯》上4a-9)
 - 背得過的, 師傅 給他免帖一箇 (《新釋》2a-4)
 - 背得過的, 師傅 給他免帖一箇 (《重刊》上4a-3)

- ②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는 주로 動詞의 용법 위주로 後期刊本에서는 주로 介詞의 용법 위주로 사용되며 다른 介詞로의 대체도 나타나는 경우.
 - 예) 那般者, 我打水去, 恁 將馬來 (《舊刊》10a-9)
 - 那般着, 我打水去, 你 將馬來 (《翻譯》上34b-9)
 - 那麼着, 我打水去, 你 拉馬來 (《新釋》11b-4)
 - 那麼着, 我打水去, 你 拉馬來 (《重刊》上31b-2)
 - 예) 你將這一張黃樺弓上絃者 (《舊刊》28a-1)
 - 你將這一張黃樺弓上絃着 (《翻譯》下30b-5)
 - 你把這一張黃樺皮弓上了弦 (《新釋》32b-2)
 - 你把這一張黃樺皮弓上了弦 (《重刊》下29a-5)

- ③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 後期刊本을 통해서 별다른 변화 없이 동사 및 介詞의 용법으로 모두 사용되는 경우.

20) 《老乞大諺解》(1670年)와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는 《翻譯老乞大》와 구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용례에서는 《舊刊老乞大》, 《翻譯老乞大》,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諺解》의 예만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예) 到今半箇月, 怎麼才到的這裏? (《舊刊》1a-4)
 → 到今半箇月, 怎麼纔到的這裏? (《翻譯》上1b-1)
 → 到得半箇月, 怎麼纔到這裏來呢? (《新釋》1a-5)
 → 到得半箇月, 怎麼纔到這裏? (《重刊》上1a-10)
- 예) 離閣有一百步地向街, 那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舊刊》14a-3)
 → 離閣有一百步地, 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翻譯》上48b-4)
 → 離閣有一百多步, 北巷大街開的雜貨鋪便是 (《新釋》16a-3)
 → 離閣有一百多步, 北巷大街開的雜貨鋪便是 (《重刊》上44b-4)

④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 後期刊本을 통해서 변화 없이 介詞의 用법으로만 사용되면서 같은 의미의 다른 介詞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現代漢語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예) 出外時, 也和恁一般 (《舊刊》12a-6)
 → 出外時, 也和你一般 (《翻譯》上41b-5)
 → 若出外時候, 也與你們一般 (《新釋》13b-10)
 → 若出外時候, 也與你們一般 (《重刊》上38a-6)
- 예) 那錢物, 則由那幫閑的人支使 (《舊刊》34b-5)
 → 那錢物, 只由那幫閑的人支使 (《翻譯》下54b-3)
 → 他拿錢, 又只隨幫閑的人使 (《新釋》40a-5)
 → 他拿錢, 只由那幫閑的人使 (《重刊》下51a-4)

⑤ 《老乞大》에서는 介詞의 用법으로 사용되나 後期의 문헌에서 대부분 다른 介詞로 대체되고 現代漢語에서도 介詞의 用법이 없는 경우.

- 예) 既那般呵, 前不著村, 後不著店也, 咱每則 迭那裏宿去? (《舊刊》3b-3)
 → 既那般時, 前不着村, 後不着店 咱們只投那裏宿去? (《翻譯》上10a-8)
 → 既是那麼着, 前不着村, 後不着店, 咱們又投那裏去宿呢? (《新釋》4a-2)
 → 既是那麼着, 前不着村, 後不着店, 咱們又投那裏去宿? (《重刊》上9b-3)
- 예) 你既賣時, 也不索你將投市上去, 則這店裏有者 (《舊刊》19b-9)
 → 你既要賣時, 也不須你將往市上去, 只這店裏放着 (《翻譯》上69b-1)
 → 你既要賣, 也不必你往市上去, 就這店裏放着 (《新釋》22b-2)
 → 你既要賣, 也不必你往市上去, 只在這店裏放着 (《重刊》上63b-3)

《老乞大》 刊行 시기에는 現代漢語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介詞가 이미 출현했기 때문에 ① 유형은 소수의 예들만이 보이고 이 역시 해당 介詞가 아직 文法化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유형의 양상은 주로 “將, 把”에 의해 대표되며 이 유형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老乞大》의 刊本을 통해 목적어가 술어 앞으로 이동하는 어순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老乞大》에 출현하는 介詞들의 대부분이 ③ 또는 ④의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이 유형의 介詞들은 介詞의 文法化가 거의 종료단계에 이르러 近代漢語와 現代漢語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양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⑤는 《老乞大》에서는 介詞로 文法化되어 사용되었으나 경쟁의 결과 같은 기능 영역의 다른 介詞로 대체되다가 결국은 기능을 잃고 마는 상황을 보여 준다. “방향, 대상, 處所의 起點”을 나타내는 “投”는 《老乞大》 刊本을 통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 주는 介詞로 《舊刊》에서는 활발히 사용되다가 《翻譯》부터 많은 예들에서 “往, 把, 從”로 대체되어 後期刊本에서는 소수만이 출현한다. 《老乞大》에서 나타나는 “投, 就(+장소)”의 介詞的 用法은 現代漢語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⑤ 유형은 文法化가 종료되어 사용되다가 介詞로서의 생명력을 잃어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반영해 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각 유형들은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老乞大》에 실제로 나타나는 介詞의 용법들을 분류할 수 있고 介詞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文法化의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적 유용한 분석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文法化란 實辭에서 虛辭로 전이하는 연속변이(Clines)의 과정이라는 언급을 확인시켜 준다. 연속변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는 변화이고 공시적으로는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의 여러 항목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연속체인 것으로 동일한 근원에서 온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공시적으로는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관련 형태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老乞大》에 나타나는 介詞가 보여

주는 文法化 정도의 차이를 통해 近代漢語에 나타난 介詞 변화의 여러 양상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기의 중국 자료들에 나타나는 양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2. “將/把”의 文法化와 어순변화

본절에서는 “將/把”구문이 《老乞大》에서 어떤 양상으로 출현하는지 살펴 보고 또한 文法化의 각도에서 이 구문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구문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將/把”는 문장 내에서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내어 초점화시키는 작용을 한다.²¹⁾ 이 결과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전치되어 “將/把+명사(목적어)+동사(구)”의 형식이 되며 이와 함께 문장 내에서의 어순변화와 의미변화를 수반한다. 現代漢語의 “把/將”구문은 中古漢語의 連動文에서 첫 번째 동사로 “잡다, 가지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던 “將/把”가 5~8세기부터 文法化되기 시작함으로써 형성되게 된 것이다.²²⁾ 이러한 文法化의 과정을 거쳐 “將/把”가 受事者 표지(patient marker)나 도구 표지 또는 완성을 나타내는 助詞 등의 기능을 가진 語法 표지로 변하게 된다.

《老乞大》에 나타난 “把/將”의 양상은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³⁾

- 21) 여기에서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내어 초점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언급은 文法化 과정이후의 상황을 결과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실제 변화 과정은 連動式 “V₁OV₂”구조 중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介詞로 발전한 결과 “PP V”의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 22) Sun(1996), 김광조(2002) 등에 근거하여 “把/將”구문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 3세기까지의 上古漢語에서 “把/將”은 “가지다, 잡다, 이끌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였다.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中古漢語시기에는 連動構文의 첫 번째 동사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受事者 標誌(Patient Marker)의 문법 기능을 갖는 介詞로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다.

- ① 早期刊本과 後期刊本에서 모두 動詞로 사용되는 경우
- 예) 俺從年時正月裏將馬和布子到大都賣了 (《舊刊》4b-10)
 → 我從年時正月裏將馬和布子到京都賣了 (《翻譯》上15a-4)
 → 我從年時正月裏將馬匹與布到京都賣了 (《新釋》5b-1)
 → 我從年時正月裏將馬匹與布到京都賣了 (《重刊》上13b-4)
- 예) 俺四箇人, 爨著一兩半羊肉, 將二兩燒餅來 (《舊刊》17b-3)
 → 我四箇人, 炒着三十箇錢的羊肉, 將二十箇錢的燒餅來 (《翻譯》上61b-2)
 → 我四箇人, 炒三十錢的羊肉, 取二十錢的燒餅來 (《新釋》20a-2)
 → 我四箇人, 炒三十錢的羊肉, 取二十錢的燒餅來 (《重刊》上56a-6)
- ② 早期刊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다가 後期刊本에서는 語法 표지로 나타나는 경우
- 예) 那客人就告了 (《舊刊》9a-1)
 → 那客人就告了 (《翻譯》上29b-6)
 → 那客人就把這緣故告了 (《新釋》10a-3)
 → 那客人把這緣故告了 (《重刊》上26b-8)
- 예)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舊刊》6a-6)
 →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翻譯》上19b-8)
 → 你把鍋燒滾了, 下上豆子 (《新釋》7a-1)
 → 你把鍋燒滾了, 下上豆子 (《重刊》上17b-8)
- ③ 早期刊本에서는 “將”이 語法 표지로, 後期刊本에서는 “把”가 語法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 예) 初喂時, 則將料水拌與他 (《舊刊》7b-1)
 → 初喂時, 只將料水拌與他 (《翻譯》上24a-8)
 → 初喂他的時候麼, 就把料水拌草與他吃 (《新釋》8a-8)
 → 初喂的時候, 就把料水拌草與他喫 (《重刊》上21b-8)
- 예) 若是先與料呵, 那馬則揀了料喫, 將草都拋撒了 (《舊刊》7b-3)
 → 若是先與料時, 那馬只揀了料喫, 將草都拋撒了 (《翻譯》上24b-4)
 → 若是先饋他料, 那馬只管揀料吃, 草都拋撒了 (《新釋》8a-10)

23) 김광조(2002)에서는 “將/把”가 《翻譯》과 《重刊》에서 動詞, 受事者 표지, 도구 표지, 완성 표지 등으로 출현하는 용례와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 若是先饋他料, 那馬只管揀料喫, 把草都拋撒了 (《重刊》上22a-3)

④ 早期刊本에서 後期刊本에 걸쳐 “將” 또는 “把”가 변화 없이 語法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예) 教別人將咱每做甚麼人看? (《舊刊》2a-8)

→ 別人將咱們做甚麼人看? (《翻譯》上5b-7)

→ 別人將我們看作何如人也? (《新釋》2b-2)

→ 別人將我們看作何如人? (《重刊》上5a-8)

예)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纔拿著回來 (《舊刊》9a-4)

→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纔拿着回來 (《翻譯》上30a-8)

→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纔能拿着回來 (《新釋》10a-7)

→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纔拿着回來 (《重刊》上27a-10)

위에서 제시한 각 유형들도 介詞의 경우처럼 《老乞大》에 나타나는 “把/將”의 용례들에 기초하여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文法化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① 유형에 속하는 용례들은 주로 “將”과 관련된 것이다. 《舊刊》, 《翻譯》 등 早期刊本에서는 “把”보다는 “將”의 출현횟수가 많으며 “將”의 경우 動詞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용례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早期刊本에서 動詞의 용법으로 사용된 “將”은 後期刊本에서 유사한 의미의 동사인 “拿, 帶, 取”로 대체되어 現代漢語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新釋》, 《重刊》 등 後期의 문헌들에서는 動詞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용례들이 급격히 줄어들며 수사자나 도구 표지로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 文法化의 과정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② 유형에 제시된 용례와 같이 극소수이지만 이 과정에서 목적어가 술어 앞으로 이동하는 어순변화를 《老乞大》의 刊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後期刊本으로 갈수록 “將”보다는 “把”의 출현횟수가 많아지는데 “把”가 動詞의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는 早期刊本이건 後期刊本이건 극소수이다. 주로 “將”위주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 여전히 “將/把”가 動詞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將/把”가 文法化를 완성하게 되는

시점에 대하여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將/把”는 後期刊本에서 動詞의 용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18세기 이후에는 이미 “將/把”의 동사적 용법이 쇠퇴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③ 유형에 보이는 바와 같이 語法 표지 용법의 경우에서 早期의 문헌들에서는 “將”이 사용된 경우가 비교적 많고,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把”가 사용된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러한 용례들에 기초해 볼 때 “將”이 “把”보다 먼저 文法化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의 속도에서는 더 완만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중국 문헌보다는 《老乞大》의 刊本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헌적 특성 또는 方言의 영향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現代漢語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일부 방언에서는 “將”도 사용되고 있으나 現代北京語에서는 “將”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把”가 사용되고 있다.

이 이외에 《老乞大》에 반영된 “將/把”의 文法化 과정과 관련되어 언급할만한 양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早期刊本에서는 도구 표지로 주로 “着, 將, 用”이 사용되고 있고, 後期刊本에서는 “把, 將, 拿”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 표지들도 動詞의 용법에서 文法化의 결과 나타나게 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早期의 문헌들에서 도구 표지로 사용되던 “着”이 後期の 문헌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주로 “把”가 이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표지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將/把”구문은 “把”까지도 現代北京語에서는 출현이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動詞+將”의 형식으로 사용되던 動詞 “將”은 動詞的 의미를 상실하고 선행하는 動詞의 방향보어 표지나 완성 표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助詞로 文法化되는데 주로 早期刊本에서만 출현하며 後期刊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將”은 後期刊本에서는 단순히 탈락되거나 또는 다른 완성 표지인 “了”로 대체되기도 한다.²⁴⁾

3. 後置詞의 文法化와 어순변화

後置詞란 일반적으로 名詞, 動詞, 短語 등의 뒤에 붙어 모종의 語法的 기능을 나타내는 漢語語法 요소이다. 漢語에서 이 語法 요소는 蒙古語의 영향으로 元代에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元代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고 清代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老乞大》의 刊本들 중에서는 《舊刊老乞大》와 《翻譯老乞大》 등의 早期刊本에서 “行/上(上頭), 呵/時, 根前/根底, 裏” 등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後置詞가 출현하고 있다.

後置詞의 文法化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後置詞가 본래 漢語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접촉의 범위 즉 알타이어의 영향에 의하여 출현한 後置詞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後置詞 출현이 전적으로 알타이어와의 접촉에서 온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余志鴻(1987)은 後置詞 “行”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漢書》에 나타난 6가지 예를 제시하고 “行”의 虛辭化가 이미 漢代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余志鴻(1987)은 後置詞 “行”이 《史記》, 《漢書》 중에서 匈奴와의 交戰 상황 중에서 유독 많이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行”은 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非漢語의이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둘째, 일부 後置詞는 漢語 본래의 것으로 일부 後置詞는 알타이어와의 접촉에서 온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²⁴⁾ 본고 역시 元代漢語의 전형적인 後置詞 “行”의 기원을 고찰할 때 전적으로 알타이어와의 접촉에서만 기원을 찾으려는 관점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24) 이러한 양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광조(2002) 참고.

25) 江藍生(2000)은 “行”이 두 가지 경로의 기원을 거쳐 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元代漢語의 “行”은 “動詞/介詞+N行(+VP)”와 “N行+VP”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첫 번째 형식은 漢語에 본래 있던 것이고 두 번째 형식은 蒙古語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형식이라는 것이다.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이다. 첫째는 漢語와 다른 외국어와의 對譯에서 사용되는 漢字는 가능하면 당연히 이전에도 사용되던 글자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行, 上, 時, 裏”등과 같은 글자들은 後置詞의 용법은 아니지만 元代漢語 이전의 중국문헌들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도 언급한 “行”과 관련된 형식 중에서 “N行+VP”는 元代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형식이나 元代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형식“動詞/介詞+N行(+VP)”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새로 어떤 語法 요소가 출현할 때 기존의 형식을 참고하는 것은 語法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元代漢語에서 後置詞가 출현하게 된 원인은 역시 기본적으로는 漢語와 蒙古語와의 접촉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²⁶⁾ 後置詞를 사용하여 某種의 語法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알타이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알타이어의 後置詞는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어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蒙古語의 後置詞와 元代漢語의 後置詞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蒙古語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後置詞가 方位나 時間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⁷⁾ 《老乞大》

26) 언어간에 전면적으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기층(substratum), 상층(superstratum), 방층(adstratum)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중 상층은 어떤 정복민족이나 종족이 피정복 민족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에 자신들 언어의 특징을 남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층 현상은 대개의 경우 정복민족의 문화수준이 피정복민족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경우 나타난다. 중국의 역사를 통해 살펴 보면 金代, 元代, 清代 등의 시기에 언어 접촉을 통해 이러한 상층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女真族, 蒙古族, 滿洲族 등은 漢族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언어와 漢語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이들 왕조가 멸망하면서 이들 언어는 漢語에 어느 정도 특징을 남기고 소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元代漢語의 後置詞도 蒙古語와의 접촉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층의 개념에 대해서는 Jeffer, R. J. & I. Lehiste(1979) 참고

27) 《元朝秘史》를 비롯한 13세기 자료들에 나타나는 後置詞의 경우를 살펴보면 音譯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기능에 따라 蒙古語 後置詞나 接尾詞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蒙古語 後置詞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13세기의 元代蒙古語 문헌에서부터 주로 그 예들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刊本에서의 상황을 살펴 보면 《舊刊》, 《翻譯》에서의 後置詞 현상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新釋》, 《重刊》 두 책에서는 이 현상이 弱化되었는데, 이것은 곧 《新釋》과 《重刊》 시기에 漢語가 이미 蒙古語의 영향에서 벗어나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그 자체의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元代漢語 後置詞의 기원은 漢語의 方位詞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언어 접촉이 일어날 때 어휘는 쉽게 차용이 되지만 語法的 요소는 차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蒙古語의 여러 語法 요소 중 後置詞가 漢語로 차용된 이유는 漢語의 方位詞와 분포(distribution) 면에서 유사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漢語의 方位詞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 뒤에 오는 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漢語와 알타이어가 접촉할 때에 매우 容易하게 後置詞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²⁸⁾ 이는 분포에서 유사한 요소는 쉽게 차용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해 준다.

다소 특수한 경우지만 元代漢語 後置詞의 文法化 과정은 蒙古語의 後置詞가 漢語로 차용되고 이를 漢語의 方位詞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後置詞는 알타이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문장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元代에는 많은 蒙漢對譯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元朝秘史》의 편찬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蒙漢對譯의 과정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蒙古語의 後置詞 처리 문제는 對譯者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蒙古語 後置詞의 漢語對譯語로 後置詞와 분포 면에서 유사한 方位詞를 사용하게 되고 方位詞는 본래의 언어 환경 이외에 다른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법적 의미와 기능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漢語對譯語라도 漢語 語法에 생소한 구조나 글자들을 함부로 採用하여 쓸 수는 없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方位詞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對譯語가 필요할 경

28) 李泰洙(2000:37) 참고

우는 “行”과 같이 기존의 유사한 형식에서 나타난 자를 끌어 쓰기도 하고 “呵”와 같이 대응하는 蒙古語 原文의 漢字 阿速와 유사한 글자를 쓰기도 한 것이다. “行, 呵”와 같은 後置詞는 《翻譯》과 같은 이후의 문헌에서 “上, 時”와 같은 보다 漢語의 구조에 부합하는 後置詞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문헌적 요인에 기인하였든 언어 변화적 요인에 기인하였든 元代漢語의 전형적인 後置詞라고 볼 수 있는 “行, 呵”는 왕조의 멸망과 함께 後置詞로서의 기능을 점차로 소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老乞大》 제판본에 출현하는 後置詞의 양상을 살펴 보면 《舊刊》에 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後置詞는 “行, 上, 呵, 時, 根底, 裏”등이고 《翻譯》에서는 이 중 “行, 呵”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後置詞는 각각의 刊本에서 사용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데, 《新釋》 및 《重刊》 등 後期の 刊本에 이르러서는 後置詞가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後置詞들은 方位詞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實辭적 의미는 많은 부분 퇴색하고 名詞, 動詞, 短語 등의 뒤에 붙어 動作의 對象, 動作의 基點, 目的地, 原因, 假設, 前提 등의 새로운 語法的 의미를 추가하게 된다. 이는 文法化의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상세히 언급하였는데 문제는 後置詞의 경우에 文法化의 과정에서 어순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後置詞와 관련된 구문에서 어순변화 현상은 오히려 文法化 과정이 종료된 후 나타나게 되는데 《老乞大》 刊本에서는 이러한 어순변화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舊刊》과 《翻譯》에서 後置詞가 출현하는 문장들은 《新釋》 및 《重刊》에서 여러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

① 後置詞가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前置的 요소를 첨가한다.

- 예) 俺漢兒人□學文書來的上頭, 些小漢兒言語省的有.(《舊刊》1a-9)²⁹⁾
 → 我漢兒人上學文書. 因此上, 些少漢兒言語省的.(《翻譯》上2a-8)
 →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着. 所以些須知道官話.(《新釋》1b-1)

29) 《舊刊》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예문에서의 □ 부분은 “行”인 것으로 보인다.

→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 所以些須知道官話.(《重刊》上2a-7)

② 後置詞는 소실되고 前置的 요소로 바뀌어 사용된다.

예) 你誰根底口文書來?(《舊刊》1a-10)

→ 你誰根底學文書來?(《翻譯》上2b-2)

→ 你跟着誰學書來着?(《新釋》1b-2)

→ 你跟着誰學書來?(《重刊》上2a-9)

예) 只是高麗田地裏行的.(《舊刊》2a-7)

→ 只是高麗地面裏行的.(《翻譯》上5b-2)

→ 只可在朝鮮地方行得去.(《新釋》2a-10)

→ 只可在朝鮮地方行得去.(《重刊》上5a-2)

예) 怕你不信時, 別箇店裏試商量去儘教.(《舊刊》5b-10)

→ 怕你不信時, 別箇店裏試商量去.(《翻譯》上18b-6)

→ 你若不信我的話麼, 到別箇店裏問問去.(《新釋》6b-3)

→ 你若不信我的話麼, 到別箇店裏問問去.(《重刊》上16b-6)

③ 後置詞는 소실되고 前置的 요소도 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後置詞의 기능을 나타낸다.

예) 每日學長將那頑學生師傅行呈著.(《舊刊》2b-6)

→ 每日學長將那頑學生師傅上稟了.(《翻譯》上7a-5)

→ 每日學長將那皮頑的學生 向師傅稟了.(《新釋》3a-2)³⁰⁾

→ 每日學長將那皮頑的學生 稟了師傅就打他.(《重刊》上6b-6)

예) 明日病痊了時, 大醫 根底重重的酬謝也.(《舊刊》30b-9)

→ 明日病痊了時, 大醫 上重重的酬謝.(《翻譯》下41a-7)

→ 若病大好了, 必要重重的酬謝.(《新釋》36a-6)

→ 若病大好了, 重重的酬謝.(《重刊》下39b-8)

따라서 《新釋》과 《重刊》에서는 더 이상 後置詞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前置的 요소를 사용하거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30) 본 용례에서 《新釋》의 경우에는 後置詞가 소실되고 前置詞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으나 《重刊》에서는 後置詞가 소실되고 前置詞도 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後置詞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後置詞와 관련된 어순변화는 方位詞에서 後置詞로의 文法化가 완료된 후 그 소실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新釋》과 《重刊》 시기에 이르게 되면 後置詞는 당시 漢語에서 기능을 잃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後置詞가 담당하고 있는 어법적 기능을 표현하게 되면서 바로 이 과정에서 어순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新釋》과 《重刊》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現代漢語의 특성에 더욱 부합하게 된다. 《老乞大》의 早期刊本에서 後期刊本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변화는 後置詞의 소실과 관련된 형식의 변화가 어순변화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³¹⁾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위에서 제시된 세 종류의 유형은 동일한 언어요소가 문장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순의 방식으로 동일한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蒙古語의 영향으로 動作의 對象, 動作의 基點, 目的地, 原因, 假設, 前提 등의 어법적 의미가 일정한 시간동안 後置詞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이질적 요소는 언어환경이 변함에 따라 더 이상 漢語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漢語의 구조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近代漢語에서의 介詞의 발달 및 어순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後置詞가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前置的 요소를 첨가하는 첫 번째 유형은 後置詞가 前置的 요소로 변해가는 과도 단

31) 《舊刊》과 《翻譯》에서는 여러 종류의 後置詞가 빈번하게 출현하나 《新釋》과 《重刊》에서는 前置的 요소 위주로 後置詞가 나타내는 語法的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舊刊》의 後置詞는 元代漢語의 상황과 유사하나 《翻譯》의 後置詞 用法은 元代漢語와도 일부 차이가 있으며, 《新釋》 및 《重刊》과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翻譯》에서는 풍부한 後置詞의 用例를 보이고 있으나 “行, 呵”와 같은 元代漢語의 전형적인 後置詞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원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爲~上, ~上頭”의 형식보다는 “因此上”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翻譯》에 나타나는 後置詞의 用法과 기능도 蒙古語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翻譯》의 後置詞를 고찰할 때는 문헌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行, 呵” 등 元代漢語의 가장 전형적인 後置詞들이 《舊刊》에는 출현하나 《翻譯》에는 출현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老乞大》의 後置詞는 元代 漢語의 상황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後置詞가 後期刊本에서 여러 형식으로 바뀌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漢語 변화 및 元代 漢語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IV.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의 원인

본고에서는 주로 文法化의 관점에서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文法化란 語法 변화에 있어 중요한 설명도구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지만 변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語法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재해석”과 “유추”를 그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하여 왔다.³²⁾ 또한 이들은 文法化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老乞大》에 나타난 文法化와 어순변화도 이러한 요인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Ⅲ장에서 논의한 내용 중 介詞 및 “將/把”와 後置詞는 그 변화의 원인 및 어순변화 과정에서 차이를 보여 별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介詞 및 “將/把”가 어순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은 古代 漢語 중 절대 다수의 용례에서 介詞의 기능을 보여 온 “於, 以”가 지나치

32) “재해석”이란 語法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기존의 語法 구조를 재해석한 결과 語法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는 영어에서 비인칭 구문의 인칭구문으로의 변화인데 이는 어순에서 OVS를 SVO로 재해석함으로써 語法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語法 구조의 애매성에 의한 재해석에 기인한 것이다. “유추”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유형을 본받아서 어떤 語法 형태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변화를 입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범주 안에 묶여질 수 있는 형태들이 그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유형에 맞추어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형태가 증가되어 수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이미 있는 어떤 형태가 탈락·소멸되거나 하는 것을 유추적 변화라 한다. 語法 변화의 요인과 이와 관련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Jeffer, R. J. & I. Lehiste(1979:111-118) 참고.

게 과중한 역할을 맡고 있고, 언어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介詞의 출현도 요구되어 連動文 “V₁OV₂(O)”구조 중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介詞로 발전한 결과 古代漢語에서 “V+介詞構造(PP)”위주였던 어순이 “介詞構造(PP)+V” 위주의 어순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³⁾ 《老乞大》 刊本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어순변화가 기본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PP+V”위주 어순의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위의 용례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介詞들의 기능이 刊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文法化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介詞 및 “將/把”가 文法化 과정 중에서 어순변화가 발생하는 데 비해 後置詞는 文法化 과정이 완료된 후 어순변화가 일어난다. 즉 後置詞의 경우에는 분포에서 유사한 方位詞에서 文法化되었기 때문에 文法化 과정에서는 어순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後置詞의 기능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後置詞는 口語 차원보다는 蒙漢 對譯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로 보이는데, 蒙漢 對譯의 과정에서 蒙古語 後置詞의 漢語 對譯語로 後置詞와 분포 면에서 유사한 方位詞를 사용하게 되고 方位詞는 본래의 언어 환경 이외에 다른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語法的 의미와 기능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介詞 및 “將/把”의 文法化 과정은 점진적인 것으로, 後置詞의 文法化 과정은 다소는 비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언어 요소 모두 文法化 과정을 겪고 나면 쇠퇴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사용빈도가 더욱 잦아진다. 사용빈도와 의미적 표현강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文法化를 통해 實辭가 虛辭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 형태의 의미적 표현강도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언어 요소가 다른 구문으로 출현 영역을 넓히면서 “유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미 文法化되어 존재하고 있는 구문 구조로 아직 文法化되지 않은 구문

33) 介詞構造와 관련된 어순변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연구의 역사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張楨(2002:245-284) 참고

구조들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文法化의 과정에 참여한 기능이 유사한 여러 語法 요소들은 공시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면서 해당 語法 기능을 하는 語法 요소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介詞 및 “將/把”의 경우처럼 주로 文法化의 속도 차이나 발생 시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後置詞의 경우처럼 해당 언어에 보다 부합되어 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경쟁의 결과 그 중의 특정 語法 요소가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경쟁자들을 몰리치고 해당 語法 기능을 전담하는 語法 요소로 변하게 되며 《老乞大》의 刊本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文法化와 관련된 원인이외에도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알타이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梁伍鎭(1998), 李泰洙 江藍生(2000) 등에서는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에 대하여 유형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① 목적어+동사

- 예) 底似的漢兒言語說不得的上頭, 不敢言語 (《舊刊》15a-1)
 → 他漢兒言語說不得的, 因此上不敢說話 (《翻譯》上51b-7)
 → 他不懂漢人說的官話, 故此不敢說話 (《新釋》17a-3)
 → 他不懂中國的話, 故此不能說話 (《重刊》上47b-2)

② 목적어+有/沒有

- 예) 爲甚麼這般的歹人有? (《舊刊》8a-5)
 → 爲甚麼有這般的歹人? (《翻譯》上26b-7)
 → 爲甚麼有歹人呢? (《新釋》9a-4)
 → 爲甚麼有歹人? (《重刊》上24a-4)

34) 李泰洙·江藍生(2000)에서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여섯 가지 이외에 부사어가 보어를 대체하는 현상, 怎麼의 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老乞大》의 刊本들을 통하여 어순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③ 목적어+ 不是

- 예) 俺買呵, 買一兩箇, 自穿的不是 (《舊刊》36a-5)
 → 我買時, 不是買自穿的 (《翻譯》下59b-9)
 → 我買去, 不是自家穿的 (《新釋》41b-9)
 → 我買去, 不是自家穿的 (《重刊》下56a-3)

④ 목적어+ 來/去

- 예)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 (《舊刊》2a-7)
 →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翻譯》上5b-3)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新釋》2b-1)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重刊》上5a-4)

⑤ 부사가 피수식어로부터 떨어져있는 현상

- 예) 你底似的休早行, 俺聽得前頭路澁有 (《舊刊》8a-4)
 → 你十分休要早行, 我聽得前頭路澁 (《翻譯》上26b-5)
 → 你們不要 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上甚惹有歹人 (《新釋》9a-3)
 → 你們不要 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澁有歹人 (《重刊》上24a-2)

⑥ 접속사의 위치

- 예) 旣你知道價錢, 索甚麼多說? (《舊刊》27a-7)
 → 你旣知道價錢, 要甚麼多說? (《翻譯》下28a-4)
 → 你旣知道價錢, 我也不多說了 (《新釋》31b-4)
 → 你旣知道價錢, 我也不多說了 (《重刊》下26a-10)

Ⅲ장에서 논의된 세 가지 語法 요소는 漢語史에서 어순변화와 관련되어 매우 중시되어 온 것들이지만 이미 관련 어순변화는 기본적으로 종료되어 《老乞大》 刊本들에서 그 어순변화의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에 위에 제시된 유형들은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어순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의 ①~⑤ 유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元代漢語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며 蒙古語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元代 지배층의 언어였던 蒙古語의 영향에서 온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早期刊本에서 보이는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은 주로 蒙古語의 영향으로 元代漢語에 나타나게 되지만 明代 이후 蒙古語의 漢語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순도 본래의 漢語 구조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게 되는데 《老乞大》 刊本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³⁵⁾ 위의 ①~⑤ 유형은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이기 때문에 蒙古語의 漢語에 대한 영향이 기본적으로 사라진 《老乞大》 後期刊本에서는 이러한 구문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早期刊本에서 나타난 이러한 종류의 어순이 後期刊本 시기에는 이미 漢語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예) 我先番大都來時, 你這店西約二十里來地 (《舊刊》8a-1)
 → 我先番北京來時, 你這店西約二十里來地 (《翻譯》上26a-4)
 → 我前番從北京來時, 離你這店裏約走二十里來地 (《新釋》8b-10)
 → 我前番從北京來時, 離你這店裏約走二十里來地 (《重刊》上23b-2)

또한 元代漢語에서 보이는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 문제를 고찰할 때에 對譯 과정의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後置詞는 口語 차원보다는 蒙漢 對譯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로 보인다. 《老乞大》 早期刊本에서 보이는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은 方言 및 口語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보다 전면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 문제에 대하여 文法化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아울러 어순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

35) 《老乞大》 早期刊本에서 보이는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과 알타이어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李泰洙·江藍生(2000:80-82) 참고.

보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주요한 용례로 제시한 介詞 및 “將/把”와 관련된 어순은 元明 시기에 이미 변화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老乞大》 刊本들에서 어순변화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용례는 매우 적은 수이나 이들은 文法化의 정도에 따라 부류를 이루며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文法化 과정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즉 《老乞大》 刊本을 통해 어순변화가 기본적으로 종료된 이후의 介詞 및 “將/把”의 文法化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둘째, 後置詞의 경우에는 분포에서 유사한 方位詞에서 文法化되었기 때문에 文法化 과정에서는 어순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後置詞의 기능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文法化의 관점에서 살펴본 위의 세 가지 語法 요소는 漢語史에서 어순변화와 관련되어 매우 중시되어 온 것들이지만 《老乞大》 刊本들에서 그 어순변화의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알타이어와의 접촉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어순변화의 용례는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순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早期刊本에서 보이는 漢語와 이질적인 어순은 주로 蒙古語의 영향으로 元代漢語에 나타나게 되지만 明代 이후 蒙古語의 漢語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순도 漢語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게 되는데 《老乞大》 刊本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文法化 현상은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도 수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漢語史를 통해서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산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漢語語法史 연구에 있어 이를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와 아울러 역사 언어학의 기본 과제인 변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기술과 변화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고찰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江藍生, 〈後置詞“行”考辨〉, 《近代漢語探源》(北京:商務印書館), 2000.
- 康寔鎮, 《「老乞大」朴通事研究》(臺北:臺灣學生書局), 1985.
- 馬貝加, 《近代漢語介詞》(北京:中華書局), 2002.
- 余志鴻, 〈元代漢語“~行”的語法意義〉, 《語文研究》第2期, 1987.
- 余志鴻, 〈元代漢語的後置詞系統〉, 《近代漢語研究》(二), (北京:商務印書館), 1999.
- 王力, 《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 1980.
- 劉慧, 《三種版本《老乞大》詞匯、語法對比研究》, 南京大學碩士論文, 2002.
- 李泰洙, 〈古本、諺解本《老乞大》裏方位詞的特殊功能〉, 《語文研究》第期, 2000.
-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北京:語文出版社), 2003.
- 李泰洙·江藍生, 〈《老乞大》語序研究〉, 《語言研究》第3期, 2000.
- 張楨, 《漢語介詞詞組詞序的歷史演變》(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
- 鄭奠·麥梅翹, 《古漢語語法學資料彙編》(北京:中華書局), 1964.
- 清格爾泰, 《蒙古語語法》(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1991.
- 권재일, 〈통사 변화 연구의 대상과 방법〉, 《언어학》 제17호, 1995.
- 권재일, 〈문법 변화와 문법화〉, 《제4회 서울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1997.
- 김광조, 〈『老乞大』에 나타난 “將/把”字文의 文法化 研究〉, 《中語中文學》第30輯, 2002.
- 량홍매, 《《老乞大》의 제 간본을 통해 본 중국어의 문법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 愼鏞權, 《老乞大諺解의 漢語音 研究 -18世紀 刊本 의 在右字音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 愼鏞權, 〈《老乞大》에 나타난 後置詞에 대하여〉, 《中國語文學》第42

輯, 2003.

梁伍鎭, 《老乞大 朴通事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論文, 1998.

劉性銀, 《『老乞大』·『朴通事』語法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論文, 2000.

이기갑, <한국어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言語와 文化》 8, 1993.

이기갑,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1995.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1998.

小澤重男, 《元朝秘史》(東京 岩波書店, 1994.

Heine, B., U. Claudi & F. Hünemeyer,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1.

Hopper, P.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E. Traugott & 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I, 17-35, 1991.

Hopper, P. & E.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Jeffer, R. J. & I. Lehiste.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9.

Lehmann, C.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 A Programmatic Sketch*, vol. 1,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zu Köln, Köln, 1982.

Meillet, A.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Reprinted in A.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912.

Sun, C. *Word-Order Change and Grammaticalization in the History of Chines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元朝秘史》(13세기중엽), (京都: 中文出版社), 1975.

- 《舊刊老乞大》(14세기?),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
 《翻譯老乞大》(1517 이전),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0.
 《老乞大諺解》(1670),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奎章閣叢書第九.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序), (서울: 弘文閣), 1984.
 《老乞大新釋》(1761序), 奎章閣所藏本.
 《重刊老乞大諺解》(1795 이후), 奎章閣所藏本.

〈中文提要〉

《老乞大》是朝鮮時代以來韓國廣泛使用的漢語教科書。《老乞大》早期版本中出現的語序，在以後的版本中發生了一定程度的變化，不同版本中對應的語序的差異反映了元代以後語序的發展情況。本文通過對《老乞大》版本的有關內容進行比較研究，以揭示語序的發展情況，從而解釋《老乞大》版本中語序變化的原因，對近代漢語的一側面管窺一斑。而本文採取語法化的角度，側重於考察語法化對語序變化方面的作用。

本文語法化的角度上討論了有關語序變化的如下問題：介詞和“將/把”字句問題。元明時期有關介詞和“將/把”字句的語序變化基本結束，介詞詞組以位於VP前為主。因此，《老乞大》版本中有關這些現象的語序也如此。雖然《老乞大》版本中看不到這些現象的語序變化過程，但這些語法要素在《老乞大》版本中用法不同，通過做詳細的考察，以更明確地揭示這些語法要素的語法化過程；後置詞問題。後置詞在《老乞大》不同版本裏的語序情況不一致，《舊刊》、《翻譯》的後置詞在《新釋》、《重刊》中有了變化，《新釋》、《重刊》中後置詞已不再單獨使用。《舊刊》、《翻譯》以使用後置詞為主，《新釋》、《重刊》則以使用前置詞為主表達語法意義。

此外，《老乞大》版本中出現的語序變化主要是受阿爾泰語的影響所致。元代漢語的語序極有可能是語言接觸的過程中產生的，《老乞大》早期版本反映了這些元代漢語的語序情況。《舊刊》、《翻譯》兩本裏這種現象比較明顯，

《新釋》、《重刊》兩本裏則明顯地弱化，這就證明《新釋》、《重刊》時期的漢語已擺脫蒙古語的影響，恢復了原來的狀態。

주제어: 《老乞大》, 近代漢語, 語序變化, 語法化, 介詞, “將/把”字句, 後置詞, 語言接觸

K C I